

2012. 8. 6 제292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2. 8. 6 제292호

##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하계 레스토랑 주간' 행사 개최 (뉴욕市)

(토막기사) 여러 뮤지엄의 경영을 총괄하는 '뮤지엄 공재단(公財團)' 설립  
(파리市)

## 건강·복지

(토막기사) '공구은행'을 설립해 사회봉사 및 지역공헌활동에 필요한 공구  
지원 (미국)

## 방재·안전

(토막기사) 폭력조직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범죄 예방 추진  
(미국 시카고市)

(토막기사) 맹견(猛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맹견 규제대  
책 강화 추진 (런던市)

(토막기사) 내 손으로 집 고치기, 도시농업 등의 확산에 따라 사고위험도  
커져 안전사고 대응교육 실시 (영국 리버풀市)

(토막기사) '아이 지킴이 도전 제안사업' 실시 (도쿄都)

---

## 도시환경

1. 국영·시영 및 민간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관리정책으로 영국에서 가장 질 높은 공원도시로 선정 (영국 셰필드市)  
(토막기사) '장기 환경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출간 (호주 시드니市)

## 도시교통

2.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매력적인 버스정류장 확산 (파리市 외)  
(토막기사) 영국 최초의 도심 케이블카 개통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3. 초소형아파트 모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 및 도심지역 대상 시범 사업 실시 (뉴욕市)
  4. 'Eco-District 개발계획' 발표 (워싱턴 D.C.)
  5. 민간 주택(빈집)을 주택약자의 공동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보조금 지급 (도쿄都)
-

## 문화 · 디자인

### ‘하계 레스토랑 주간’ 행사 개최 (뉴욕시)

- 고급 레스토랑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2012 여름 뉴욕 레스토랑 주간’(NYC Restaurant Week) 행사가 개막됨. 3코스 점심이 24.07달러(약 2만 7000원), 저녁은 35달러(약 4만 원)에 맞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12년 7월 16일 시작해 8월 10일까지 이어짐.
- 市정부, 뉴욕 관광청, 관내 레스토랑이 협력해 실시하는 이 행사는 1992년 시작되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함. 각 레스토랑은 애피타이저-메인코스-디저트로 구성된 레스토랑 주간 특별 3코스 메뉴를 선보임. 레스토랑마다 주중·주말 또는 점심·저녁 등 특별할인가격을 적용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함.
- 참여 레스토랑은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 보체’(A Voce), 프랑스 레스토랑 ‘카페 블루’(Caf Boulud) 등 280여 개에 달하며 최대 반값으로 최고급 음식을 맛볼 수 있음.

([www.nycgo.com/restaurantweek](http://www.nycgo.com/restaurantweek))

### 여러 뮤지엄의 경영을 총괄하는 ‘뮤지엄 공재단(公財團)’ 설립 (파리시)

- 지난 25년 동안 파리의 여러 뮤지엄 조직은 ‘파리 뮤제’와 市 문화국에 종속되어 왔음. 각 뮤지엄에서는 일상적 관리와 상설 전시를 맡고, 파리 뮤제라는 민간단체가 위임을 받아 특별 전시회와 상설전시 카탈로그를 기획하고 있음. 그런데 市의회가 2013년 1월 1일 여러 뮤지엄의 경영을 총괄할 뮤지엄 공재단(公財團)을 발족할 것을 2012년 6월 20일 의결함.
- 이에 따라 7월 12일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열림. 여기에는 14개의 파리시 뮤지엄이 참여함. 파리시 제1부시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파리 문화유산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9명의 市의원과 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됨.

공재단은 市로부터 약 2억 7500만 유로(약 38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 공재단을 만드는 목적은 뮤지엄 경영을 단순화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뮤지엄을 개방하며 뮤지엄의 여러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이 기구는 파리 뮤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기구 설립으로 뮤지엄 경영이 다시 지자체에 귀속됨. 향후 공재단이 뮤지엄, 컬렉션, 비공개 작품 소장 창고,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운영함. 또한 뮤지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시회 프로그램을 개발함.
- 각 뮤지엄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함. 공재단 설립 후에도 전체 뮤지엄의 직원 수는 변하지 않음. 市가 컬렉션과 건물의 소유주이고 뮤지엄 대표 임명, 운영위원회 이전 프로젝트 승인 등 전략적 방향을 결정함. 공재단은 컬렉션과 건물 운영을 담당하고 인력자원 감독은 여전히 市 문화국이 담당함.

- 뮤지엄 공재단 설립 이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7년부터 시작된 상설전시 무료입장을 지속해 더 많은 이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슨트(Docent) 제도를 발전시킴. 파트너십이나 후원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널리 알림. 컬렉션을 늘리고 컬렉션의 정보화를 통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임. 문화 이벤트도 개발함.
- 현재 건물 리노베이션, 인터넷 사이트 및 컬렉션 검색 사이트 개발, 온라인 예매, 학교-문화기관-뮤지엄 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음.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le-conseil-de-paris-vote-la-creation-de-l-etablissement-public-des-musees/rub\\_1\\_actu\\_116342\\_port\\_24329](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le-conseil-de-paris-vote-la-creation-de-l-etablissement-public-des-musees/rub_1_actu_116342_port_24329))

([www.paris.fr/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117725&portlet\\_id=24052](http://www.paris.fr/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117725&portlet_id=24052))

([www.lejournaldesarts.fr/site/archives/docs\\_article/101479/la-ville-de-paris-cree-un-nouvel-etablissement-public-reunissant-les-14-musees-municipaux.php](http://www.lejournaldesarts.fr/site/archives/docs_article/101479/la-ville-de-paris-cree-un-nouvel-etablissement-public-reunissant-les-14-musees-municipaux.php))

## 건 강 · 복 지

‘공구은행’을 설립해 사회봉사 및 지역공헌활동에 필요한 공구 지원 (미국)

- 미국에 있는 비영리단체 Toolbank(공구은행)는 사회봉사 및 지역공헌 활동에 필요한 공구를 공구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빌려주고 있음. Toolbank의 설립 목적은 개인에게 공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러 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음.
- 샬럿(Charlotte)시의 Toolbank는 500여 행사에 참여한 1만 1000명의 자원 봉사자에게 공구를 지원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함. Toolbank가 소유한 공구는 삽, 전기톱, 망치, 사다리 등 사회봉사 및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공구 14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Toolbank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볼티모어市에서는 2012년 5월에 설립되었고, 신시내티市에서는 2012년 여름에 설립될 예정임. Toolbank의 출범으로 필요한 공구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회봉사 및 지역공헌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목록과 수량을 요청할 경우 Toolbank는 필요한 공구를 지원해 주고, 공구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음.



【사회봉사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공구(왼쪽)와 Toolbank 로고(오른쪽)】

([www.theatlanticcities.com/neighborhoods/2012/07/awesome-power-toolbanks/2523/](http://www.theatlanticcities.com/neighborhoods/2012/07/awesome-power-toolbanks/2523/))

(<http://en.wikipedia.org/wiki/Toolbank>)

(<http://charlotte.toolbank.org/Volunteer.aspx>)

## 방 재 · 안 전

### 폭력조직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범죄 예방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날로 증가하는 살인과 총격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경찰청은 10여 개에 이르는 폭력조직과 이들 분파 간 관계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최근의 폭력조직 사건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분파 간에 발생하는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 조직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임.
  - 2012년 상반기 시카고 살인사건 피해자는 2011년에 비해 38% 증가한 260여 명에 이르고 뉴욕市에 비해 인구 대비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폭력조직 간 상호보복으로 인해 폭력사건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市는 10만 명에 달하는 시카고 지역 폭력조직원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일선 경찰서는 2012년 5월 운영에 들어간 실시간 폭력조직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보복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찰관을 파견함.
- 市는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통해 치안 확보, 관광객 증대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 이를 위해 뉴저지의 명성 높은 경찰청장 출신을 영입해 데이터 기반 단속법을 도입함. 이는 범죄 빈발 지역에 순찰차를 더 많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발생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 새로 도입된 시카고 폭력조직 데이터베이스는 한 조직원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조직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을 둘러싼 인물과 조직 간 역학관계를 분석해 범죄 예방에 활용함.
  - 찰스턴과 미네아폴리스, 멤피스와 같은 도시도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절도와 도난, 무장강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함.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2011년 11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향후 12시간 이내에 46㎡ 단위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

- 市는 또한 폭력조직 간 싸움이나 거리에서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거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단체 ‘Ceasefire’에 100만 달러(약 11억 3500만 원)를 지원함. 이 단체는 다툼이나 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싸움 중재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후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활동함. 이 프로그램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범 운영됨.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3644004577520863051001848.html?mod=WSJASIA\\_hps\\_sections\\_news](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3644004577520863051001848.html?mod=WSJASIA_hps_sections_news))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violence\\_prev/news/2012/jul/ceasefire\\_pilot\\_programbeginstoday.html](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violence_prev/news/2012/jul/ceasefire_pilot_programbeginstoday.html))

### 맹견(猛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맹견 규제대책 강화 추진 (런던市)

- 2012년 3월 런던 동부 뉴햄(Newham) 지역에서 맹견(猛犬)이 경찰을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등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맹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 도입을 옹호하는 입장이 런던 자치구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됨. 런던 자치구연합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런던경찰청, 중앙정부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임.
  - 런던市의 33개 자치구연합체인 London Councils는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불법 무기를 소지하는 것과 같이 취급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市 및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런던 경찰청이 강제로 보호하게 된 개가 2006년 193마리에서 2010년 1107마리로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함. 맹견에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우편배달부가 속한 통신노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음.
  - 런던경찰청 측은 맹견을 불법 무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문제의 핵심이 맹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중앙정부도 맹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市는 맹견 대책을 보리스 존슨 시장의 치안확보 대책 중 하나로 보고 있음. 市는 자치구연합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대중을 해칠 수 있는 맹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함. 현재 市는 맹견 주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People with Dogs’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전용 홈페이지([www.peoplewithdogs.org.uk](http://www.peoplewithdogs.org.uk))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영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핏불 테리어, 일본산 도사(Tosa), 도고 아르헨티노(Dogo Argentino), 필라 브라질레이로(Fila Brasileiro) 등 4종의 맹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수 없음. 맹견이 사람에게 심한 부상을 입힐 정도로 공격했을 경우 개 주인을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이번에 런던 자치구연합에서 요구한 처벌 강화안은 불법무기 소지 시와 마찬가지로 최대 4년의 징역형임.

([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7607260](http://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7607260))

([www.london.gov.uk/priorities/crime-community-safety/tackling-priority-crimes/weapon-dogs](http://www.london.gov.uk/priorities/crime-community-safety/tackling-priority-crimes/weapon-dogs))

([www.peoplewithdogs.org.uk/](http://www.peoplewithdogs.org.uk/))

### 내 손으로 집 고치기, 도시농업 등의 확산에 따라 사고위험도 커져 안전사고 대응교육 실시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내 손으로 가구 만들기와 집 고치기 이른바 DIY(Do-it-yourself)와 집에서 채소 기르기 등 도시농업 등이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도 커짐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함. 市 거래기준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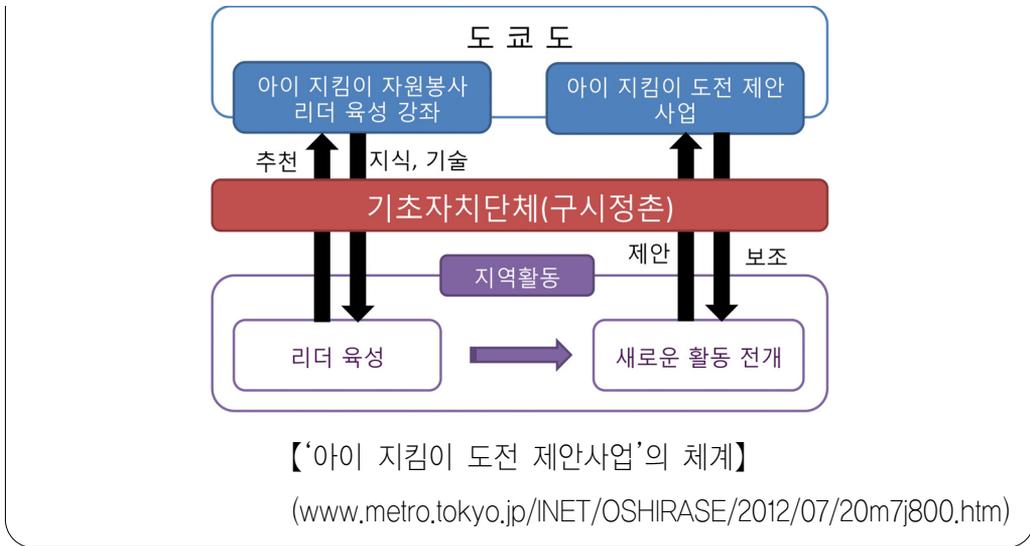
가정용품 전문 슈퍼마켓인 Taskers와 파트너십을 맺고 무료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행사를 마련함.

- 시민은 2012년 7월 13~14일 양일간 Taskers 매장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농기구 및 공구에 대한 무료 점검을 받고,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교육받음. 또한 전기장비 사용 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누전사고를 막아주는 누전차단기 사용법도 교육받음.
- 주최 측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시민 50명에게 선착순으로 10파운드(약 1만 8000원) 상당의 누전차단기, 원예 및 재배용 작물 씨 1봉지, 화분 대용 재배봉지 1개를 선물로 증정함. 영국 날씨의 특성상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에 주택 개보수와 정원 및 채소 가꾸기를 많이 해 이번 행사를 7월에 실시하게 됨.

(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217259)

#### ‘아이 지킴이 도전 제안사업’ 실시 (도쿄都)

- 도쿄都는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보호 봉사활동을 주도하는 리더 300인 육성과 동시에 방법 자원봉사단체가 펼치는 선도적인 아동보호활동을 대상으로 ‘아이 지킴이 도전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를 통해 활동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방법 자원봉사단체가 실시하는 아동안전 확보에 관한 사업 중 지역이 안고 있는 아동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사업,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를 증진하는 사업, 3세대가 교류해 아동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함.
- 도쿄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중 5명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고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회칙 및 규약)을 제정한 법인이 지원 대상이 됨. 2013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都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비용을 지원함.



## 도 시 환 경

### 1. 국영·시영 및 민간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관리정책으로 영국에서 가장 질 높은 공원도시로 선정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관내 22개 녹지가 영국 내 좋은 공원과 녹지를 선정해 수여하는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을 받는 등 과거 공업도시의 오명을 벗고 다양한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녹색깃발상은 영국 내 공원 및 녹지를 매년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깃발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준 높은 공원을 상징하는 표준임. 셰필드처럼 20개가 넘는 공원이 상을 받을 경우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인정받게 됨.

- 이 상을 주관하는 The Keep Britain Tidy Group은 공원 및 녹지의

상태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녹지가 지역사회와 주민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8개 기준에 의해 평가함. 따라서 녹색깃발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공원 관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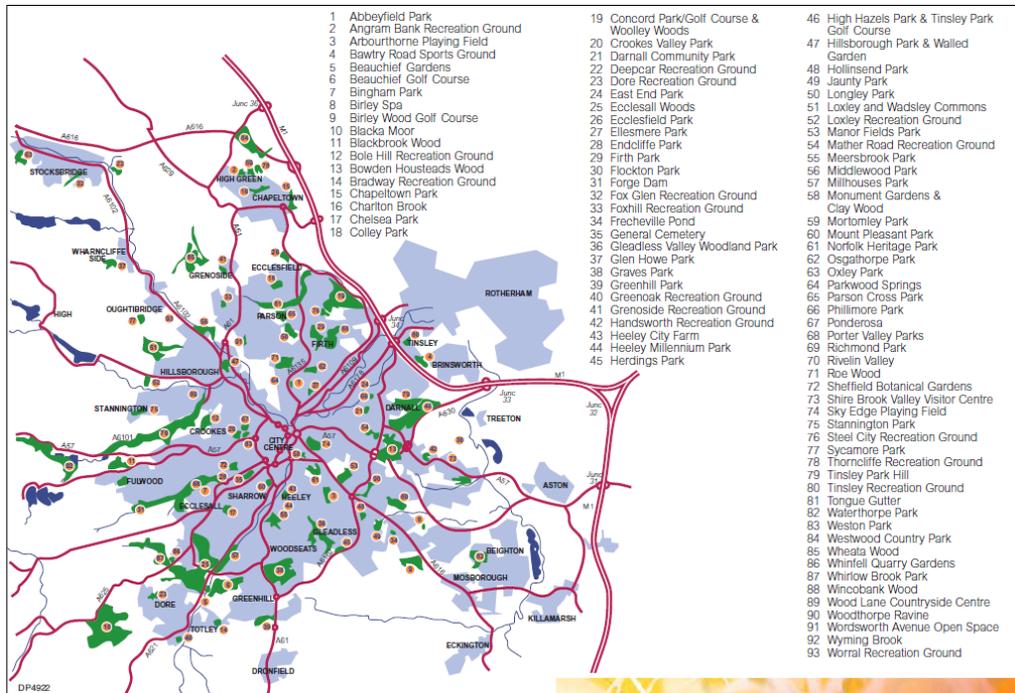
- 셰필드의 경우 市가 자원봉사단체, Friends Groups(공원별로 조직된 지킴이 모임), Green Estate사(社), 셰필드 자연트러스트(Sheffield Wildlife Trust)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공원을 가꾸었으며, 여기에 지역별 주민단체도 적극 참여함. 특히 대상 공원 및 녹지 중 7곳이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주민단체가 관리주체로 활동함. 이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관리 형태가 셰필드의 가장 큰 특징임. 상을 받은 공원 중 15개소는 2011년에도 녹색깃발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7개소는 올해 처음 녹색깃발을 받음.

- 셰필드市에는 市가 관리하는 공원 13개소,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반경 1.2~20km) 20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동네 공원 및 녹지(반경 약 400m 이하)는 50개소에 달함. 이 중 웨스턴 공원(Weston Park) 등이 녹색깃발상을 받음.



【웨스턴 공원으로 2012년 좋은 공원상(Green Flag Award)을 받음】

- 市 관계자는 녹색깃발상을 수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하였다는 점을 제시함. 특히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함. 여기에 더해 일부 공원 및 녹지에서는 주말농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공원관리기법을 도입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분석함.



【세필드市 소재 공원 지도】

([www.bbc.co.uk/news/uk-england-south-yorkshire-18882324](http://www.bbc.co.uk/news/uk-england-south-yorkshire-18882324))

([www.sheffield.gov.uk/whats-new/newsreleases.html?showdetails=Show&uuid=78ba11a0-399b-449d-a7d2-074956206213&isDirectorySearch=true](http://www.sheffield.gov.uk/whats-new/newsreleases.html?showdetails=Show&uuid=78ba11a0-399b-449d-a7d2-074956206213&isDirectorySearch=true))

([www.sheffield.gov.uk/out--about/parks-woodlands--countryside/parks/maps.html](http://www.sheffield.gov.uk/out--about/parks-woodlands--countryside/parks/maps.html))

‘장기 환경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출간  
(호주 시드니市)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호주 시드니市는 다양한 환경 관련 계획을 시행하고, 트라이제너레이션, 분산형 수자원 관리, 폐기물 자동 수거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의 그린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市는 이번 환경계획 업데이트 이전에 시행한 ‘2030 환경계획’의 경우 목표를 30% 정도 달성했음을 밝히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고 발표함.
- 이번 계획안은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및 도시정부의 장기 환경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최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해 작성함.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 활용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보고서 부록에는 향후 어떤 데이터를 참고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장기 환경계획 시행을 위한 향후 정보 수집 및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현황	향후 계획
전기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전기 소비 관련 정보는 특정 지점별로 분기마다 정보 수집	90% 이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10%는 분기별로 수집
천연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천연가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하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시행	천연가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5개 지역에 대해 실시간 사용량 측정
기타 온실가스 배출	택시 및 비행기 운항으로 인한 정보를 분기별로 받아 매년 정리. 도시 전체 배출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
트라이제너레이션 및 재생에너지로 인한 배출	-	2013/14년까지 무탄소배출 또는 저탄소배출의 전기에너지 생산으로 기존의 에너지원 대체
물	카테고리별로 주요 물 사용 내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물 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와 분산형 물관리계획 수립, 시행
폐기물	제한된 내용의 정보만을 활용	정량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리포팅 결과	-	정성적 분석도 함께 시행

([www.cityofsydney.nsw.gov.au/Environment/Overview/StateOfEnvironmentReporting.asp](http://www.cityofsydney.nsw.gov.au/Environment/Overview/StateOfEnvironmentReporting.asp))  
([www.cityofsydney.nsw.gov.au/Environment/Overview/documents/EnvironmentalSustainabilityProgressReportQ3\\_2011-12.pdf](http://www.cityofsydney.nsw.gov.au/Environment/Overview/documents/EnvironmentalSustainabilityProgressReportQ3_2011-12.pdf))

## 도 시 교 통

### 2.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매력적인 버스정류장 확산 (파리市 외)

- 버스정류장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보여주고 있음. 버스정류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모두 이용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음. 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 시애틀市는 1989년부터 ‘Bus Shelter Mural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예술가가 참여해 버스정류장과 벽면을 디자인하고 예술품으로 바꾸는 노력을 벌임으로써 700개소 이상의 버스정류장이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을 가진 공간으로 바뀜. 이는 버스정류장이 대중문화예술의 장(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래의 버스정류장(l'arrêt de bus du futur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정류장을 디자인하고 있음. 디자인을 담당 한 Marc Aurel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Marc Aurel이 밝힌 여러 기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기본전제와 더불어 간단한 식사, 책 대여, 메이크업할 수 있는 공간, 지역정보 획득, 휴대전화 충전, 날씨에 따른 조명 밝기 조정, 전기 자전거 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버스 정보가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제공되는 등 버스이용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전체 도시디자인과 궤를 같이하도록 디자인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정류장(왼쪽). 러시아에 있는 토끼 모양의 정류장(오른쪽)】



【일본 곶나카이 지역에 있는 대형 딸기 모양의 정류장과 수박 모양의 정류장. 1990년 엑스포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지역관광에 이용됨】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의 정류장. 책 대여가 가능한 버스정류장도 있음】



【다양한 조명으로 도시 미관과 조화를 꾀하는 버스정류장】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있는, 예술작품이 그려진 정류장(왼쪽)과 태양계가 그려진 버스정류장(오른쪽)】

(<http://sdotblog.seattle.gov/2012/06/22/once-around-the-web-gimme-shelter/>)

([http://metro.kingcounty.gov/prog/sheltermural/shelter\\_mural.html](http://metro.kingcounty.gov/prog/sheltermural/shelter_mural.html))

([www.city.isahaya.nagasaki.jp/topics/burari/no004/burari.htm](http://www.city.isahaya.nagasaki.jp/topics/burari/no004/burari.htm))

([http://switchboard.nrdc.org/blogs/kbenfield/what\\_if\\_bus\\_stops\\_were\\_designe.html](http://switchboard.nrdc.org/blogs/kbenfield/what_if_bus_stops_were_designe.html))

### 영국 최초의 도심 케이블카 개통 (런던市)

- 런던市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심 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런던 동부(East London) 지역에 설치해 운행에 들어감. 이 도심 케이블카는 템스강을 가로지르며 시민의 교통수단이 될 예정임.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의 후원으로 설치된 도심 케이블카는 런던 도클랜드 경전철 및 Jubilee 지하철과 연결되어 시민에게 흥미로운 교통수단이 될 전망이다.

- 이 도심 케이블카는 30초 간격으로 운영하게 되고 기존의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음. 1회 이용하는 데 3파운드 20펜스(약 6000원), 어린이는 1파운드 60펜스(약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0회 탑승권을 16파운드(약 2만 8000원)로 할인해줌.
- 도심 케이블카는 교통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템스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제2금융지역인 카나리 와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니치 지역, 템스 하구언, 올림픽 파크를 내려다볼 수 있음. 市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름철 영업 외 시간에 무정차 운영을 실시함.



([www.london.gov.uk/londons-emirates-air-line-open](http://www.london.gov.uk/londons-emirates-air-line-open))

### 3. 초소형아파트 모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 및 도심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뉴욕市)

- 뉴욕市는 소형아파트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당선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335 East 27th Street에 실제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이와 같은 뉴욕市의 시도는 독신 가구나 2인 가구가 증가해 초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임.
  - 市 주택보전 및 개발국은 경제개발국과 협력해 ‘adAPT NYC Competition’이라는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초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市 인구변화로 실제 필요한 초소형 주택 수에 비해 공급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디자인 공모는 2012년 7월 말에 시작되어 9월에 접수를 마칠 예정임. 이번 공모전은 현 주택법상의 소형주택 규모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규모로 설계될 예정임. 단지 전체를 초소형아파트로 건축하지 못하는 현 건축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市는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후에 초소형아파트에 대한 조닝도 수정할 계획임. 시민들의 현재 생활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성장을 추진하는 市는 이번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市는 지불 가능한 자가주택이 시민의 웰빙과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집에서 독립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 은퇴 후 자가 주택을 찾는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소형주택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주목하게 됨. 특히 임대건물에 초소형아파트를 접목시켜 이를 역세권 안에 개발하고, 초소형아파트 내부는 부엌과 욕실을 포함하고 건물 자체는 혼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 市는 이번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조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거주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이번 공모전이 시민들의 주거유형을 재정 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겠다는 市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건축법 및 관련 법규상 초소형아파트의 입지, 규제, 임대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市는 밝힘.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2b%2Fpr257-12.html&cc=unused1978&rc=1194&ndi=1](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2b%2Fpr257-12.html&cc=unused1978&rc=1194&ndi=1))

#### 4. 'Eco-District 개발계획' 발표 (워싱턴 D.C.)

- 미국 NCPC(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는 지난 2년간 17개의 연방정부기관과 워싱턴 D.C.가 함께 계획한 Southwest Eco-District 도시계획안을 발표함. 개발계획안이 발표된 지역은 워싱턴 D.C. 남서부 쪽에 위치한 L'Enfant 지역임. 이곳은 과거 도시 재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너무 황폐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임.



- 총 110에이커(약 445,154m<sup>2</sup>) 면적의 15개 블록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개발되면 1만 9000여 명의 연방정부기관 공무원을 위한 오피스건물, 야외공간이 생기게 됨. 이 지역이 황폐해진 가장 큰 원인인 보행자 접근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성능 건물과 조경을 배치함으로써 친환경지구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Eco-District 개발계획은 완공되기까지 약 20~30년이 걸리지만, 전

기와 물의 에너지효율이 너무 낮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고, 인근의 Southwest waterfront 계획도 민간부문과 함께 진행 중이며, 워싱턴 D.C.에서 주관하는 Maryland Avenue 재개발계획도 시행 중에 있어 이 지역 전체를 친환경지구로 만드는 계획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친환경지구에는 전기, 물, 쓰레기를 획득, 관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한 건물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건물을 기본 유닛으로 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임.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이 황폐한데다 편의시설이 없는 점이 이 지역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임을 파악하고, the National Mall 지역과 Southwest waterfront 지역에 이르는 10가 도로 전체에 나무를 심고 이 길을 따라 5개 미술관을 추가 건설하고 정기적으로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도 열 계획임.
- 이 지구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자 접근성인데 이를 위해 커다란 블록을 세분화하고 건물 사이로 산책길과 같은 도로를 만들고 대중교통 연결, 환승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또한 L'Enfant역의 통근열차 승강장과 메트로 정류장을 태양열 지붕으로 덮고, 현재 Union Station에 집중되어 있는 통근열차 노선을 L'Enfant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임.
- 현재 황폐한 L'Enfant 지역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처 Benjamin Banneker 공원에 있는 분수에서 워싱턴 채널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임.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가 이 공원을 가로지르고 있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움. 따라서 이 공원을 전면

적으로 다시 디자인해 해안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Eco-District의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임. Benjamin Banneker 공원과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위에는 태양전지판으로 덮인 지붕을 만들 계획임.



- 오바마 정부의 행정규칙(Executive Order) 13514에 따라 새롭게 지어질 연방정부기관 건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물, 에너지 효율은 높일 예정임.
  - 건물에는 태양전지판과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 급탕에 이용하는 태양열 시스템을 건물 옥상과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하고 지열 원도 이용할 계획임.
  - Eco-District에서 사용되는 상수의 양을 70%까지 줄이고, 빗물 재사용을 늘릴 계획임. 모든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반면, 생활하수는 재사용될 예정임.

- 빗물은 옥상정원, Green Streets, 나무와 화분을 통해 저장, 재사용되도록 함. 여기에 저장되지 못한 물은 10가 도로 밑에 있는 물탱크에 저장되어 재사용될 계획임. Eco-District에서는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된 도로 면적을 전체 35%까지 늘릴 예정임. 또한 현재 이 지역에서 나무가 덮고 있는 면적이 8%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 40%까지 늘릴 계획임.
-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75%의 시공 재료를 재사용하고 80%의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퇴비화 처리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임.

(<http://dirt.asla.org/2012/07/12/southwest-eco-district-plans-finally-unveiled/>)

## 5. 민간 주택(빈집)을 주택약자의 공동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보조금 지급 (도쿄都)

- 일본 정부는 민간 소유의 빈집(空家)을 목조주택 밀집지역 종전 거주자의 이전 대상이나 주택확보를 위해 배려가 필요한 자(이하 ‘주택약자’라 칭함.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육아 가구, 소득이 21만 4000엔(약 310만 원)을 넘지 않는 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위한 공동주거(Group Living,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가구가 협력해 생활하는 것)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도쿄都는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쿄都 민간주택 활용 시범사업’(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7월 18일 시행방침을 수립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목조주택 밀집지역 내 종전 거주자의 이전 대상지로 활용하는 경우 정비지역 내 또는 목조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종전 거주자 중에서 도쿄都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區 또는 市)의 정책에 협력해 이전하는 주택약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최초 입주자격을 부여함. 단 3개월 이상 주택약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고령자 등 주택약자의 공동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 후 최초 입주자를 주택약자만으로 구성된 복수의 가구로 하되, 3개월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약자가 1가구만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예정임.
  - 공동주거용 주택은 ① 가구마다 전용 거실이 있고, ② 각 가구의 사생활이 확보되며, ③ 공동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용공간인 거실, 식당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④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수납시설, 세면시설 및 욕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설비된 경우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거주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⑤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계약 대상이 되는 공용부분을 제외한 각 호의 바닥면적은 13㎡ 이상이어야 하고, ⑥ 입주자 전체에 대해 최저 거주면적 수준 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보조대상 경비는 국가 사업 보조대상 경비와 동일하며, 보조금액은 보조대상 경비의 3분의 1로서 리노베이션 공사를 기준으로 빈집 각 호당 100만 엔(약 1450만 원)을 한도로 함. 都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방침 수립 이후 모집요강 공표 및 설명회 실시, 사업자 모집, 사업자 결

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20m7i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20m7i1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20m7i101.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20m7i101.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DATA/20m7i100.pd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7/DATA/20m7i100.pdf))